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감금 1,092일째 더 이상 눈물만을 흘리고 있을 수 없고 4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대통령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 심정을 호소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이렇게 대통령님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설마 하면서 지켜보던 나라는 정말이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나라 “ 끝없는 무저갱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대통령님께서서는 당이 기울어져 갈 때마다 일으키시고, 위기에 처할 때마다 지키신 정당이잖아!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과 지지로 국회의원, 장관이 되었고, 권력을 누렸잖아! 분명히 인간적인 도리와 정치적인 의리만은 지킬 거야! 라고 수없이 되새기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민초의 바램이었을뿐, 한 날 희망에 불과했음을 아주 명확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황OO이 이끌고 있는 미OO당(미OO당)의 정치인들과 관계자들은 더불어민OO당 보다 더 밋고 수십 년간을 지지해온 애국 우파 국민들의 가슴에 다시는 뽑아낼 수 없는 대못을 박아 넣고 말았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할 때 풍찬노숙하며, 비가 오나, 눈이오나, 40도를 웃도는 한 여름 폭염 속에도, 영하 20도가 넘어가는 한 겨울 강추위 속에서도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의 억울함과 무죄 석방만을 한 목소리로 외치며 떨시, 천대, 괘시, 치욕, 수치, 모욕, 누명, 폭언, 폭행, 정신병자 소리까지 듣고 심지어 폭행으로 병원에 입원하시고, 1년 이상 감옥에 까지 다녀 오면서까지도 단 한 시간도, 단 하루도 변치 않고 박근혜 대통령의 애절한 음성, 굶고, 터져 거북이 등같이 되어버린 민초들의 손이라도 단 한번이라도 잡아주시기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18일만 지나면 4.15총선거를 하게 됩니다.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어요. 이제 4월15일이 지나면 대한민국은 더 심각한 좌경화로 가게 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현 거대 야당은 회생불가, 기대불가, 정체성 짬뽕 정당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하늘이 도와주셔서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박근혜대통령님을 철저히 배척하고, 기억에서조차 지워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정당에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롯이 자기들 국회의원 수명연장, 그 잘난 금배지 한 번 더 달아보려는 자기 헌신과 희생은 전혀 없는 소인배들과 다를바 없기 때문입니다. 보고 싶은 얼굴, 듣고 싶은 목소리, 온기를 간직하고 계신 그 손을 민초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제발 잡아 주세요. 시간이 너무나 너무나 없어요. 제발 제발,,,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쏟아 오르는 울음을 참고자 입술을 움켜 무는 그 사람, 얼굴은 동상으로 피부가 변해 버렸고, 자기 욕심밖에 모르는 정치인(홍OO종, 김OO수) 들로부터 이미 두 세 번의 배신을 당했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피가 거꾸로 쏟아오를 것 같은 아픔과 골고다 언덕 위 예수님과 같은 고통을 알기에, 수 많은 지지자들에게 그 눈빛을 보았기에 자신의 아픔 따위는 감추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어서 빨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자신이 움켜쥐고 있는 태극기를 받아 주시라고 광화문 광장에서 통곡하고 통곡하며 외치던 그 한 사람...부디, 1분 아니 1초만이라도 지치고 힘겨워하는 그 분의 손을 붙드시고 어깨를 두드려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2016년부터 지금 까지 태극기 민초들을 아스팔트에서 독립투사같이 이끌고 있는 그 분과 애국국민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선거의 승리도 아니고, 오로지 대통령의 따뜻한 격려면 충분합니다. 저는 3 자녀를 둔 아버로서, 정의가 불의가 되고, 불의가 정의가 되어 버린 대한민국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할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서신이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께 언제 전달되어 읽으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지난 4년이라는 시간동안 지켜보고 들었던 수많은 연설의 진정성과 애절함을 보고 난 후 2016년 이전에는 이름조차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 분을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님 이후 가장 신뢰하는 희망의 정치인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곰 같은 분, 눈물이 많으신 분 **“조 원 진”** 이라는 그 분을 꼭 불러주시어 위로해 주시며 그 손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옥쇄가 온전히 보전되어 불쌍한 우리 민초들의 손을 잡게되시는 날 까지 평강하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김영옥, 백남희 올림(3월 26일)